

예레미야 애가는 폐허로 버려진 예루살렘에 ‘남은 자’들이 노예로 끌려간 동포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한 자기들의 죄를 아파하면서 슬픔과 절망, 비탄과 통곡을 시의 형식으로 엮은 것이다.

### I. 제목

히브리어 성서에서 첫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삼는 히브리 관례에 따라서 첫 단어인 ‘애카’이다. 이 뜻은 ‘아, 어떻게, 오호라’ 등의 놀라움과 슬픔을 표현하는 감탄사이다. 이 말은 슬픈 노래, 조가의 뜻을 가진 키노트 라는 제목으로 삼았고, 칠십인역 LXX 은 의역하여 ‘눈물들’이라는 제목으로 삼았다. 우리말 성서이름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라는 뜻으로 ‘애가(哀歌)’라고 하였다. 애가는 롯기, 에스겔, 잠언, 아가와 함께 축제 때에 읽혀지는 다섯 두루마리 중의 하나로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에 읽혀졌다.

### II. 저자 및 집필 연대

18 세기까지 예레미야가 저자인 것을 의심없이 받아 드려 왔다. 일부 비평학자들이 예레미야의 저작권을 부인한다. 하지만 우리는 예레미야가 저자 인 것으로 받아 드린다.

- (1) 칠십인경은 서문에 예레미야가 멸망당한 예루살렘 폐허 위에 앉아서 애가를 읊었다고 전한다.
- (2) 요세프스와 저작, 탈군, 탈무드, 벨게이트 역본들이 전승에 의지하여 예레미야의 저작을 인정한다.
- (3) 오리겐 힐러리 제롬등의 초대교회 교부들과 18 세기 이전의 모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저자로 받아 드려왔었다.
- (4) 예레미야서와 압도적인 유사성이 있다.
- (5) 예레미야의 생애와 역사적 배경등 모든 면에서 그의 저작설을 부인할 수 없다.

저작연대는 당연히 예루살렘 멸망 후 (주전 586 년) 그의 죽음으로 사역을 마친 주후 580 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### III. 예레미야 애가의 구성

애가는 예루살렘 멸망에 즈음한 선민의 비탄과 간구이다. 애가는 5 개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다. 그 내용은 1 장은 폐허로 변한 거룩한 도성, 2 장은 예루살렘 패망의 원인인 선민의 범죄, 3 장은 패망을 목도하는 만감의 교차, 4 장은 패망 당시의 회고와 참상, 5 장은 회복의 간구로 나누어진다.

또한 다음과 같이 나눌 수도 있다.

**(1) 예루살렘의 참상(1 장):**

바빌론에 함락된 예루살렘을 과부로 묘사하여 그 참상과 파멸을 큰 슬픔으로 서술하고 있다. 원수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서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이 하나 없고 오히려 원수들의 조롱감이 된 비애를 서술하고 있다.

**(2) 여호와께서 내리신 징벌(2 장):**

예루살렘의 황폐화는 여호와의 징벌임을 고백하고, 마침내 그들의 실망, 비탄, 통곡은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울부짖음으로 바뀐다.

**(3) 고통 속의 희망 (3 장):**

여호와의 자비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회상하면서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는 희망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.

**(4) 징벌을 불러들인 죄 (4 장):**

예루살렘의 재난은 예언자들과 사제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그러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부질없이 외세에 의존했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있다.

**(5) 영원히 다스리실 여호와 (5 장):**

이스라엘이 이방인 손에 짓밟히고 썩밭이 된 처참한 상황을 울부짖으면서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당신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길 애원하며 그분께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다.

**IV. 예레미야 애가의 집필 동기**

성전의 파괴와 약탈, 굶주림, 유배 등 유다백성에게 내려진 크나큰 재난을 목격하면서 하느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 일깨우고자 했다. 저자는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서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심정을 토로하고, 그러한 슬픔과 절망을 완전하게 표현함으로써 백성들의 응어리진 슬픔과 울분의 멍을 풀어주고 신앙과 희망을 깨우쳐 주고자 했다.

**V.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들**

- (1) 인간의 죄와 죄성의 오염은 너무나 뿌리가 깊어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.
- (2)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다.
- (3) 형식적인 신앙은 결코 구원의 보장이 되지 못한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은 영원할 것으로 착각했다. 성전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.
- (4)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.
- (5)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.

- (6)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신다.

VI. 애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

- (1)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 (3:1)
- (2) 성도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
- (3) 성도의 기업이신 그리스도 (3:14)

VII. 애가서의 핵심 단어, 핵심 절, 핵심 장

- (1) 핵심 단어: 애통과 소망
- (2) 핵심 절 : 3:19-23
- (3) 핵심 장 : 3 장